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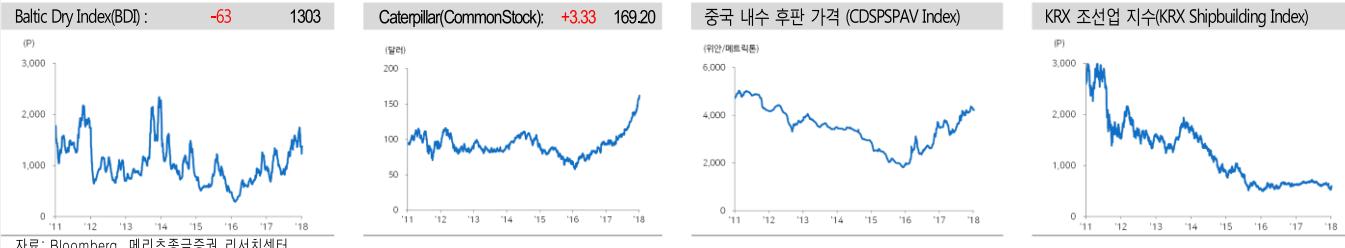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423.2	20.2	131,000	23	1.6	-11.5	30.3	91.3	43.8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7,369.7	21.3	452,500	-0.5	16.9	3.4	18.8	6.1	5.1	0.8	0.7	14.1	14.7
현대알렉스트릭	1,229.8	8.7	120,500	-2.4	7.1	1.0	5.7	11.4	9.9	1.0	0.9	9.3	9.7
현대건설기계	2,014.8	10.2	204,000	-1.0	15.9	7.5	20.7	13.0	9.6	1.4	1.2	11.7	13.9
삼성중공업	3,510.0	18.5	9,000	0.8	19.4	-22.1	22.8	56.8	282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1,695.8	3.6	15,900	0.0	-7.6	N/A	14.4	8.9	13.7	0.4	0.4	4.9	3.3
현대미포조선	1,984.0	13.2	99,200	-1.8	13.2	4.0	26.0	21.4	154	0.8	0.7	3.6	4.8
한진중공업	377.5	5.5	3,560	-1.5	14.5	-7.0	7.6	71.6	17.9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342.5	34.4	54,500	-1.8	6.9	8.1	0.2	9.6	94	1.3	1.2	14.6	13.3
두산밥캣	3,583.9	27.5	35,750	1.1	4.7	-1.8	-0.1	13.1	123	1.0	1.0	7.4	7.6
현대로템	1,589.5	28.2	18,700	-1.1	-3.1	10.0	-0.3	24.1	164	1.1	1.0	4.5	6.3
하이록코리아	346.5	47.6	25,450	-3.8	7.2	20.0	13.1	11.5	105	1.0	0.9	8.8	9.0
성광밴드	326.0	14.9	11,400	0.0	14.0	22.6	14.2	1,007.7	40.9	0.7	0.7	0.1	1.8
태광	345.8	16.8	13,050	-1.9	20.2	38.1	8.3	77.9	38.1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809.9	9.6	17,000	-1.2	7.6	-6.6	10.7	11.5	90	0.6	0.6	4.7	6.0
두산인프라코어	2,215.2	12.4	10,650	0.0	22.6	24.7	22.6	9.7	89	0.9	0.9	10.5	9.8
두산엔진	291.9	3.5	4,200	-0.7	-11.0	6.5	14.0	58.2	37.5	0.5	0.5	0.9	1.4
한국항공우주산업	4,664.2	17.7	47,850	-0.6	3.1	0.3	0.8	27.5	20.9	3.3	2.9	12.1	14.3
한화테크원	1,825.2	18.4	34,700	-0.6	1.3	1.0	-2.4	17.9	14.1	0.7	0.7	4.3	5.2
LIG넥스원	1,185.8	11.3	53,900	-0.2	-5.1	-25.3	-9.9	13.8	11.3	1.6	1.5	12.4	13.6
태웅	434.2	1.9	21,700	0.5	21.9	31.9	12.1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71.3	4.0	6,350	0.8	32.7	27.5	25.7	-264.6	37.6	1.8	1.8	-0.7	5.0
한국기본	271.7	15.4	6,180	-1.6	13.2	4.9	15.3	N/A	N/A	N/A	N/A	N/A	N/A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rafigura order for VLGC newbuildings linked to StealthGas

스위스 선사 Trafigura는 StealthGas와 용선계약 후 현대중공업에 8만CBM급 VLGC 2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2019년 말 인도 예정이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가는 척당 7천만달러로 예상됨. 거래는 Sales and Leaseback 방식으로 중국 건설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CMA CGM returns to yards with LNG fuel on the table

CMA CGM은 2020년 인도기준 1.4만TEU급 컨테이너선 6~8척 입찰을 시작했다고 알려짐. 각 선가는 1.06~1.08억달러로 알려짐. 또 CMA CGM은 LNG추진 시스템 장착을 원활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선가는 15~20% 올라갈 예정임. 수주는 한국과 중국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Imabari linked to newbuilds for Evergreen

일본 Imabari 선소는 컨테이너선사 Evergreen에서 Neo-panamax급 컨테이너선 총 18억달러 이상 수주했다고 알려짐. 수주는 1.1만TEU급 컨테이너선 10~10척으로 구성됐고, 2020년 인도 계획임. 선가는 척당 9천만달러 수준으로, 선박에는 환경규제에 대응해 스크러버가 장착될 예정임. (TradeWinds)

Newbuilding capex demand tops \$231bn

Crucial Perspective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업계가 지불해야 할 신선조 Capex 금액은 2,310억달러에 달하지만 글로벌 해운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1,910억에 불과함. 대금 조달을 위해 은행 대출이나 리스에 의존해야 함. 운임 변동성과 저 수익성 등으로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는 작을 전망임. (TradeWinds)

현대삼호중공업, 최대 3척 LNG선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이 러시아 Sovcomflot에서 최대 3척의 LNG선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7.4만CBM급 LNG선 1척 건조계약에 동형선 2척 옵션계약이 체결됐다고 알려짐. 인도는 2020년부터며, 옵션은 오는 6월, 7월 순차적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알려짐. (EBN)

Chios Navigation of Greece is ordering tanker newbuilding

그리스 Chios Navigation은 6년만에 처음으로 탱커를 주문했다고 알려짐. 현대 미포조선에 5만DWT급 MR탱커를 주문했고, 2019년 상반기 인도 예정임. 업계 관계자는 주문이 1척이고, 인도가 일찍 예정돼 IMO Tier II 기준으로 선가는 3.3천만달러 예상. 만약 Tier III면 선가에 1.5~2천만달러 추가됨. (TradeWinds)

이성근 대우조선 부사장 "3년 4분기 적자, 올해는 이익"

이성근 대우조선 부사장에 따르면, 2017년에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올해는 적자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작년 4분기는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순익이 연간 2~3천억원 순하나는 구조라고 설명함. 또 Sonangol의 드릴십 2척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인도하는 것을 목표함. (조선비즈)

강환구 현대重 사장 "울산 일감 70척 이상시 군산 재가동"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을 올해 울산 조선소 일감이 70척 이상이 되면 군산 조선소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지난해 7월 1일부터 일감부족으로 군산 조선소 가동을 잠정 중단함. 또 최근 해양 사업 물량 부족에 따라 기존 해양 사업 인력을 타 부서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짐. (뉴스핌)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